



캐릭터 상품으로
두 토끼 잡았다
식품업계 IP사업 박차
나



Life

韓 제약기업
상호교환성 확보로
경쟁력 높인다
L2



사회적 투자, 탄소저감 앞장... “금융투자업계 모범 될 것”



유진투자증권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투자의 모범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일류 증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SG 경영 강화 의지 대내외적으로 표명

유진투자증권은 ESG 경영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년마다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본 정보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금융투자업계의 ESG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의 활동을 담았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중요성을 전 임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 ESG 경영전략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임직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원고 작성, 디자인 작업까지 맡아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2024년에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사회적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기성장기업 연계투자 강화’와 ‘사회적 투자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전환(DT)·정보기술(IT), 바이오, ESG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서울 성동구청과 함께 ‘성동임팩트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유니크굿컴퍼니, 리하베스트 등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투자조합 펀드를 조성하여 농업기술 혁신에 앞장서는 스마트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은 환경, 도시재생, 정보격차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임팩트(Impact) 펀드 등 다양한 비히클(Vehicle)을 활용한 ESG 투자를 준비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임팩트 투자와 사회 형평적 채용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임팩트 투자를 진행한 소셜 스타트업 ‘키뮤스튜디오’와 협업해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9명을 유진투자증권 직원으로 채용했다.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인 키뮤스튜디오는 이들이 제작한 아트워킹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년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적 기업 대상 임팩트 투자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직원 채용도

임직원 자율선택 봉사 프로그램
1억보 챌린지로 탄소 저감 기여
아동센터에 직접 만든 책장 기부



- 1 유진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노을공원에 나무 500그루를 기부하는 1억걸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약 3만6156kg의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했다. 사진은 임직원이 노을공원을 찾아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
- 2 유진투자증권은 ESG 경영 강화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 3 유진투자증권 신입사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손수 제작한 책장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아동센터에 책장 기부 등 사회공헌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진행해 왔던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창수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줄곧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정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상암동 하늘공원 유진의 숲 조성’, ‘매칭펀드를 통한 보육원 후원’, ‘임직원 1인 2봉사활동’, ‘그룹 연계 기부’, ‘어린이집 및 학술재단후원’,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나눔국민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증하는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임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자율선택형 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회공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유진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유진의 숲 가꾸기 ▲홈리스 배식 ▲지역아동센터 배식 ▲장애직원 미술활동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임직원 건강증진과 ESG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월에는 임직원들이 한 달 반 동안 1억보를 걸으면 노을공원에 나무 500그루를 기부하는 1억걸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700여명의 유진투자증권과 금융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목표인 1억보를 크게 초과하는 총 2억 2709만보를 달성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약 15만7207km로, 이를 통해 약 3만6156kg의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지난 11월까지 총 500그루의 나무를 순차적으로 기부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에 유진투자증권 임직원이 찾아가 직접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달 20일에는 입사 2년차 신입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리뷰데이’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신입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아동용 책장을 기부했다. 2021년 입사한 직원 33명이 참여해 용산구 소재 공방에 모여 아동용 책장 11개를 제작했으며, 제작된 책장은 영등포 디모데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됐다.

이밖에도 유진투자증권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 ‘에너지 절감 캠페인 시행’ 등 ‘함께 가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본격화하기 위해 ‘ESG경영컨설팅’을 준비 중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버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7개월 만에 돌아온 타이거 우즈, 세계 랭킹 430계단 상승 /사진 뉴시스
▲여자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내년 1월 아산서 개최

▲프로배구 GS칼텍스, 자선 경매 수익금 전액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
▲배드민턴 대표팀, 항저우AG 은메달 선수 배제 논란



▲대한체육회, 로잔 연락사무소 필요성 강조...“문체부 협조 촉구”
▲빙속 김민선, 월드컵 3차 대회 우승...시즌 첫 금메달 /사진 뉴시스